

영웅소설을 활용한 한국적 지혜 읽기

-〈소대성전〉을 중심으로-

김수연*

<차례>

1. 들어가며
2. 지식 층위의 작품 이해
 - 1) 용자(龍子)와 용녀(龍女)의 천정인연
 - 2) 고아 거지의 영웅일대기
3. 지혜 층위의 문화·가치관 이해
 - 1) 관계를 소중히 하는 마음 : 연분
 - 2) 삶의 질적 변화를 이루는 힘 : 지극정성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고전소설 가운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영웅소설의 대표작 <소대성전>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외국인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문학·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한 글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텍스트의 문학적 특징을 지식 층위에서 살펴, 남녀결연담과 천상·지상의 이원구조를 ‘용자와 용녀의 천정인연’으로 설명하고, 작품 전반의 영웅 일대기 구조를 ‘고아 거지의 영웅 일대기’로 논의하였다. 작품의 핵심 구조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와 가치관의 뿌리를 지혜 층위에서 고찰하도록 하는 과정을 두었다. 이에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용자와 용녀의 천정인연’은 한국인이 지닌 ‘연분관’ 즉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냈으며, 불우한 처지의 고아 소년이 일국의 왕이 되는 ‘영웅 일대기’ 구조는 한국인 고유의 ‘정성관’인 ‘치성과 지극정성’의 마음과 연결시켰다. 이러한 마음이 곧 소설 속 주인공을 거지에서 왕으로 변화시키듯,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임을 역설하였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은 단순한 ‘이야기 책’이 아니라 ‘지혜의 서(書)’이다. 외국인 학습자에게 현대적 작품을 통해 한국사회가 최근 몇 십 년 사이 이룩한 물질적 편리함이나 현대화된 문명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나, 오랜 시간을 걸쳐 한국인 내면에 자리한 긍정적 가치를 가르칠 때,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의 세계인이 당면한 불신과 조급함이 불러오는 인재(人災)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혜가 바로 고전의 힘이다. ‘지혜의 서(書)’ 고전은 외국인 학습자는 물론 고전을 외국어처럼 여기는, 또 다른 층위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되어버린 현대의 젊은 학습들에게도 유의미한 텍스트가 될 것이라 믿는다.

주제어 소대성전, 지식, 지혜, 외국인 학습자, 고전

1. 들어가며

‘고전문학을 활용하여 외국인 고급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학·문화 교육 과정의 개발’이라는 주제 앞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문제였다. 이때 무엇이란, 단순히 텍스트 선정의 문제가 아니다. 텍스트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교 선승들의 깨달음을 모아놓은 명나라 구여직(瞿汝稷)의 『지월록(指月錄)』(1602년 간행)이라는 책이 있다. 여기서 ‘지월(指月)’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달은 부처의 가르침 그 자체이고, 지(指), 즉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 혹은 손가락은 가르침을 담은 경전일 터이다. 그것에서 유래한 성어가, 우리에게서 성철 스님의 일갈로 더 유명한 ‘견지망월(見指忘月,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한다)’이다. 영미권의 관용구 ‘not see the forest for the trees(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 한다)’도 같은 맥락의 문제의식을 담지하고 있다. 이로 본다면 우리가 가르쳐야 할 ‘무엇’은 텍스트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제안하는 비전과 삶의 지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단으로서의 텍스트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손가락이어야 우리는 달을 더 쉽고 분명하게 찾을 수 있으며, 전체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나무를 궁구해야만 숲의 생태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전문학’이 지닌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고전문학은 역사적 시간을 거쳐 현재까지 음미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텍스트이다. 더구나 그 안에는 역사를 관통하며 축적된,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유의미한 삶의 지혜가 들어 있다. 즉 고전은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의 텍스트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전을 읽으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현대문학 가운데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들 또한 대체로 고전적 지혜를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한국적이며 고급한 문화의 정수를 교육하기 위한 텍스트로서 고전이 지닌 가치와 의미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¹⁾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대중적 고소설의 대표 장르로, 18세기 이후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소설을 텍스트로 선정했다. 그중 <소대성전>은 18세기 말 이미 인본(印本) 형태로 유통되며, 당시 도시의 이야기 유통장이었던 담배가게 등에서 낭독되던 인기 아이টে็ม이었다.²⁾ <소대성전>의 국내 인기는 그 유명한 조수삼의 ‘전기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서

1) 단절론적·자기우월적 시각을 지닌 현대문학작품이 명작으로 꼽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한국의 고전문학에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 서양의 현대 명편도 기실 상상력의 원형과 주제의 깊이가 측면에서 고대신화의 전통과 중세 로망스 등을 계승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

2) 이육, 『언패』, 『역주 이육 전집』 3, 소명출판, 2001, 147쪽.

3) 조수삼, 『추재집』 7, “叟居東門外, 口誦諺課稗說, 如淑香 蘇大成 沈清 薛仁貴等 傳奇也.”

로 <소대성전>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소대성전>이 지니는 한국어문학·문화 학습 교과서로서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⁴⁾ 상업적 출판물인 방각본 소설 중에서도 <소대성전>은 두 번째로 많은 8종의 이판(異板)을 보유하고 있다.⁵⁾ 이본수는 필사본 34종과 방각본 12종, 그리고 구활자본 3종을 포함 총 49종이다.⁶⁾ 본고는 이중에서 <소대성전>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18·19세기의 방각본 판본을 텍스트로 삼았으며, 특히 완판 43장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⁷⁾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원본을 읽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측면의 큰 부담이 되기에, 실질적 텍스트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43장본을 대본으로 이루어진 최근의 번역본이 될 것이다.⁸⁾

다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무엇’이 단지 텍스트 선정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처음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보자. ‘무엇’의 층위를 크게 두 가지 나눌 때 하나는 지(指) 즉 학습의 수단인 텍스트 선정이고, 그 다음은 월(月) 즉 학습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여기서 이 두 단계의 ‘무엇’을 텍스트 중심의 지식 층위와 그것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한국적 지혜로 보고, 이를 고전을 활용한 한국학 교육과정의 구체적 학습 단계로 삼았다. 이는 Sein(존재, 사실)과 Sollen(당위, 가치)을 분리해 생각하는 서양과 달리, 천지자연(天地自然)의 사실로부터 인격도야(人格陶冶)의

4) 오다이쿠로로(小田幾五郎, 1754-1831), 『상서기문』.

5) 김일렬, 『고전소설 신론』, 새문사, 2001, 92~93쪽. 제1 작품은 16종의 이판을 지닌 <조웅전>으로, 이 또한 영웅소설이다.

6) 서경희, 『소대성전의 서지학적 접근』,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8, 102~103쪽.

7) 완판 43장본을 주 텍스트로 삼은 실질적 이유는 외국인 학습자가 접근 가능한 현대 역본의 존재유무와 관련이 크다. 그러나 본고가 지향하는 학습목표와 관련하여서도, 영웅적 입공이 중심인 경판보다, 지인지감과 결연이 강화된 완판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8) 해당 텍스트는 신해진, 『소대성전』, 지만지, 2009이다.

도덕적 당위를 유추해 온 동양의 전통적 학습관과도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는 텍스트와 목표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학습 방법의 모든 측면에게 한국적 혹은 동양적 지혜를 일깨우는 통합적 학습이 될 것이다.⁹⁾

2. 지식 층위의 작품 이해

지식 층위의 작품 이해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기본 학습에 해당한다. 텍스트를 독해하고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의 특징을 도출, 확인하는 것이다. 화소와 줄거리 수준의 내용 분석과 작품의 중심 구조 분석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는 <소대성전>에 나타나는 가장 큰 지식 층위의 특징으로, 기존 연구에서도 누차 지적한 소대성과 이채봉의 천정인연과 소대성의 영웅 일대기적 삶을 꼽았다. 이 두 가지가 작품의 핵심으로 읽혀졌던 것은 경판이 후자를, 완판이 전자를 강화한 당대의 텍스트 존재 상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¹⁰⁾

1) 용자(龍子)와 용녀(龍女)의 천정인연

“선 살이 넘도록 늙었으되 우리의 앞날을 봉양하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죽은 후의 백골인들 다투어서 거두겠소? 조상의 제사를 끊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죽어서도 죄인이라오” 그러자 부인 역시 상서의 말에 슬퍼하며 옷깃을 여미고 대답했다. “불효 삼친 중에 무자식한 죄가 가장 크다 하옵니다. 아이가 없음을 소첩이 박복한 탓이오니 소첩을 마땅히 내칠 만하나, 영감이 관대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살았으니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그러니

9) 이러한 학습은 단지 외국인 학습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인의 지혜를 잇고 살기 쉬운 현대의 젊은 학습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10) 서경희, 앞의 논문, 1998.

이제라도 좋은 집안의 정숙한 여자를 들어서서 집안의 대를 이으소서.”¹¹⁾

<소대성전>은 주인공의 부모 대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소대성의 아버지 소양은 병부상서까지 지낸 명망 높은 관리이다. 높은 관직과 많은 봉록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번다함을 좋아하지 않는 소양은, 결국 스스로 사직하고 고향인 소주(蘇州)로 내려와 만년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소박한 삶에 만족했으나, 단 한 가지, 후사를 두지 못한 것이 늘 걱정거리였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부부 중심의 가족관이 지배하는 요즘과 달리 전통적 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른바 ‘집안의 대가 끊어진 대’는 말은 가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를 잇는다는 것은 한 집안이 존재하는 방식이기에, 대가 끊어지면 그 집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 동시에 이미 돌아가신 조상들 또한 제사를 받을 수 없어 기일이나 명절에도 돌아와 흠향하실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소양이 늦도록 자식을 두지 못한, 특히 대를 이을 아들을 두지 못한 자신을 ‘죽어서도 죄인’이라 칭하며 자책한 것은 이 때문이다.

후사를 두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과 자책은 부인도 마찬가지다. 특히 당시에는 그 어떤 성문의 법률보다 강력히 작용했던 관습예법의 하나로, 속칭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 불리는 것이 있었다. 이는 결혼한 아내를 내칠 수 있는 7가지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원래의 출전은 『대대례(大戴禮)』이나, 조선 중기 이후 한국 전통사회에서 국민 보편의 도덕교과서로 기능한 『소학』 『명륜』에 ‘칠거(七去)’와 ‘삼불거(三不去)’의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어,¹²⁾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를 절대적 가치규범으로 익히고

11) <소대성전>, 29~30쪽.

12) 『소학』 『명륜』, “婦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妬去, 有惡疾去, 多言去, 竊盜去. 有三不去, 有所取, 無所歸, 不去. 與更三年喪, 不去. 前貧賤後富貴, 不去.”

따랐다. 이러한 칠거지악 중 하나가 ‘무자(無子)’였으니, 후사를 두지 못한 부인은 쫓겨나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부인은 남편 소양에게 여성의 본성으로 차마 하기 어려운, ‘시앗보기’를 권하는 것이다.

며칠 뒤, 부인이 꿈을 꾸었다. 그 꿈에, 천지가 아득하고 벼락이 치는 가운데 청룡이 구름을 헤치고 들어와 부인에게 기운을 토하더니, 그 기운이 동자로 변하여 부인 곁에 앉으며 말했다. “소자는 동해 용왕의 아들이온데, 인간 세상에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옥황상제께서 인간세상으로 내치셨나이다. 한 데 갈 곳 몰라 찢찢매던 중 영보산 청룡사의 부처님이 ‘이곳으로 가라’ 지시하시어 왔사오니, 부인은 어여뻐 여겨주옵소서.” 부인이 놀라서 잠을 깨니 남가일몽이었다.¹³⁾

그러던 어느날, 소양의 부인은 청룡의 모습으로 나타난 동해 용왕의 아들이 꿈에 드는 꿈을 꾀다. 그리고는 바로 그달부터 태기가 생기고, 열 달 후 옥동자를 낳으니 이가 곧 소대성이다. 즉 소양 부부가 원 살이 넘어 얻은 늦둥이 외동아들 소대성의 전신(前身)은 동해 용왕의 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걸맞은 배필은 누구일까.

이 승상의 부인 왕씨는 채봉을 낳을 적에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에 한 선녀가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와 옥병 속의 향수로 아기를 씻기며 말했다. “이 아기는 동정의 용녀이온데 연분을 동해 용왕의 아들과 맺었나이다. 그런데 그만 용왕의 아들이 옥황상제께 죄를 지어 인간세계로 내려왔기로, 그 인연을 이승에서라도 잇고자 하여 부인에게 왔사오니, 부인은 이 아기를 잘 길러 하늘의 뜻을 어기지 마소서.” 부인은 선녀의 말을 듣고 놀라 깨어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바로 채봉이었다.¹⁴⁾

13) <소대성전>, 33쪽.

소대성의 배필은 청주 지방에 사는 전 각로 이 승상의 딸 채봉이다. 채봉은 이 승상의 막내딸로, 위로 3명의 오라비와 1명의 언니가 있었다. 3명의 오라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대가 끊어질 염려가 없는 집안이라는 뜻이며, 굳이 자식을 더 나을 필요도 없는 상황임을 말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채봉은 막내로 태어나는데, 특이한 점은 그녀가 태어날 때 그 모친 왕 부인이 꿈 꾸었다. 채봉이 태어나던 날 왕 부인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선녀가 나타나 채봉의 전신이 동정의 용녀 즉 동정 용왕의 딸임을 알려준다. 더구나 이미 동해 용왕의 아들과 연분을 맺었으며, 동해용왕의 아들이 죄를 지어 적강하는 바람에 이승에서라도 그 인연을 잇고자 하여 따라 내려왔다는 것이다. 즉 동정 용왕의 딸 채봉은 자신의 전생 인연을 찾아 이승의 막내딸로 굳이 태어난 것이다.

이처럼 <소대성전>은 지상계의 전생 개념으로 천상계를 설정하여, 남녀 주인공이 전생에서 이미 용자(龍子)와 용녀(龍女)로의 인연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전생의 인연이 천상의 인연이라는 점은 이른바 ‘천정인연’ 즉 ‘하늘이 맺어준 인연’임을 의미한다. 이는 이승에서 부부로 맺어지는 소대성과 이채봉의 연분이 일회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에 중간에 어떠한 위기와 장애가 있어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극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후의 작품 내용이 ‘이승상의 지인지감으로 인한 소대성과 이채봉의 만남-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부부의 인연을 다짐-혼례를 올리기 전 이 승상이 죽음-채봉의 오라비와 형부가 자객을 보내 소대성을 죽이려 함-자객을 죽인 소대성이 이승 집을 나옴’처럼 위기와 장애로 인한 두 사람의 이별로 전개되지만, 독자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위기와 그로 인한 이별이 궁극적으로는 극복되며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행복한 결

14) <소대성전>, 38~39쪽.

말의 원인 중 하나가, 인물의 인연이 하늘의 뜻에 의해 전생에서부터 맺어진 것이라는 점까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거지 고아의 영웅일대기

승상은 마음이 공연히 달떠서 죽장을 짊고 월령산 조대로 갔다. 그곳에는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아두고는 버드나무 그늘 아래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옷차림은 낡을 대로 낡았고, 머리털은 마구 뒤죽박죽 흐트러져 귀밑을 덮었으며, 검은 땃국이 두 뺨에 가득 줄줄 흘러내리니 그 피죄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흥건한 땃국 속에서도 귀티가 나는 골격이 은은히 비쳐 나오니 선불리 깨울 수가 없었다. 승상은 그의 옷에 있는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이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¹⁵⁾

이 승상이 소대성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다. 소대성은 10살에 부모를 여의고, 3년 상을 치른 후 남은 가산을 정리하여 노복에게 맡기고 자신은 백금 50냥만 들고 길을 나선다. 그러나 도중에 돈이 없어 노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울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지닌 50냥 백금을 모조리 주어버린다. 그러고는 남의 외양간을 치거나 담을 쌓아주는 등의 일로 입에 풀칠하며 지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해사했던 소대성은 거지꼴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뭇짐을 하고 시냇가에서 잠든 소대성을 이 승상이 발견한다. 기실 이 승상은 이날 잠시 졸다가 자신이 늘상 낚시를 가던 월령산 조대(낚시터)에 청룡이 누워 있다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꿈을 꾸고 그곳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이 승상이 조대에서 만난 이는 땃국이 피죄죄한 거지 소년이었다. 그러나 ‘낭중지추(囊中之錐)’라고 했던가. 타고난 자질을 숨길 수가 없는지, 이 승상은 거지 고아 소년이 지닌 비범함

15) <소대성전>, 41쪽.

을 알아보고, 자상히 이도 잡아주며 깰 때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사위로 삼기 위해 집으로 데려 간다.¹⁶⁾

그러나 얼마 후 이 승상의 죽음으로 소대성은 다시금 위기를 맞고, 이 승상의 아들들과 사위의 계략에 의해 자객의 침입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른다. 소대성은 부득이 자객을 죽이고 이 승상의 집을 떠나 떠돌다가, 아버지 소양이 15년 전 수천 냥 금을 시주하고 발원했던 영보산 청룡사에 5년간 기탁한다. 그러다 천문을 통해 명나라가 흉노의 침입을 받아 황제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되고, 청룡사 부처와 죽은 이 승상의 영혼 그리고 옥포산 산신에게 차례로 칠성검, 보신갑, 청룡마를 얻어 전장으로 가 황제를 구하고 명나라를 회복한다.

(a)소생은 자신의 강한 기운을 견잡지 못하여, 만 리 청룡마를 타고 칠성검을 빼어든 채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눈을 크게 부릅뜨고는 선우를 꾸짖었다.

“반적 선우는 해동 소대성을 아느냐? 내 칼이 전장에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로다. 하니 내 너의 머리를 베고 피를 내어 나의 칼을 씻으리라.” 소생은 나는 듯이 선우에게 달려들었다. 소생이 내지르는 소리는 매우 웅장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했다. 선우는 소생의벼락같은 소리에 놀라 미처 손을 놀리지 못했다. 그순간 칠성검이 빛나면서 선우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¹⁷⁾

(b)천자가 이날 삼층단을 만들고는 장수들을 차례로 좌우에 세우고 소생을 단상 위에 앉게 했다. 그리고 천자가 단 아래에 서서 소생을 대원수로

16) 이 부분에 대해 기존 연구는 ‘지인지감’이라 하여 주목하였다. 현혜경,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지감화소의 성격과 의미 : 소대성전, 낙성비룡, 신유복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02, 1989, 175~200쪽.

17) <소대성전>, 103~104쪽.

봉했다. 소생은 단에서 내려와 천자 앞에 엎드리고는 천자의 은혜에 감사했다. 천자가 또한 차고 계시던 인검을 소생에게 하사하며 말했다. “장수들 중에 경의 말을 거역하는 자가 있거든 베어라.” 소생은 원수의 칼을 받들어 물러나오니, 삼군 중 누구도 소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소생은 원수로서 지휘대로 내려와 군병을 총괄했다.¹⁸⁾

명나라 진영은 무수한 명장들이 흉노족 선우의 칼 아래 낙엽처럼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때 일개 군정(軍丁) 신분으로 출전조차 할 수 없는 소대성이 분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단 칼에 선우를 베어 없앴다. 청총마를 타고 칠성검을 휘두르며 우렁차게 포효하는 소대성의 활약상은 참으로 호쾌한 명장면이라 할 만하다. 그 어디에도 이전 뗏국물 피죄죄한 거지 소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활약에 천자는 그에게 절대적 신임을 보이며 천자 외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나라 유방이 대장단을 높이 세우고 그곳에서 한신을 대장군에 봉한 것처럼, 천자가 삼층으로 높이 단을 쌓고 그 위에서 소대성에게 대원수의 직을 제수한 것은 군중에게 그의 위엄을 보이기 위함이다. 더구나 자신의 인검을 하사하며 ‘소대성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마음대로 베어도 된다’고 한 말은 일종의 ‘사후보고권’으로,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지위와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다.

마침내 소대성은 죽을 위기의 천자를 구하고 건국에 준하는 국가 재조(再造)의 공을 세운다. 이에 천자는 그에게 천하를 반분(半分)하여 주고자 한다. 소대성의 공이 단지 ‘제후에 봉하고 관직을 주는 것만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대성은 ‘하늘 아래 두 명의 천자가 있을 수 없다’며 간절히 사양하나, 천자는 끝내 그를 노국의 왕으로 봉하고 해

18) <소대성전>, 117~118쪽.

동 십만 호를 하사한다. 의무라고는 일 년에 한 번씩 조회하는 것뿐이니, 실질적으로는 독립적 자치국의 왕이 된 것이다. 그후 노국은 말 그대로 도불습유(道不拾遺)의 태평국이 되고, 이채봉과도 재회하여 자손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소대성전> 전개의 중심축은 소대성의 일생이며, 그의 일생은 ‘영웅의 일생’이라 말할 수 있다. 영웅의 일생 즉 영웅일대기는 주로 건국 서사시나 영웅서사시에서 확인되며, 서사무가를 통해 전승되는 대표적 이야기 구조이다.¹⁹⁾ 전 병부상서를 지낸 고관 맥 자손으로 태어나, 갑작스런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고아가 되고, 홀로 떠돌며 거지꼴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지감(知鑑)을 가진 인물의 도움으로 구출되고, 다시 죽을 위기를 당하였으나 결국에는 건국의 대업에 준하는 국란 해결의 공을 세운 소대성의 일대기는 ‘출생-시련-투쟁-승리’의²⁰⁾ 영웅 일대기 구조와 상응된다 하겠다.²¹⁾

3. 지혜 층위의 문화·가치관 이해

지혜 층위의 학습 단계는 앞 장에서 살펴본 지식 층위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한국적 문화 및 가치관을 고민하는 시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도출되는 한국적 문화와 가치관이 단순한 과거의 사실로 그치는 것과 현재에도 유의미한 것을 구분할 수

1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567쪽.

2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89쪽.

21) 물론 <소대성전>의 구조는 건국영웅서사시와는 다른 상업소설이 지닌 패턴화된 영웅일대기의 성격이 없지 않으나, 여기서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엄격한 개념구분보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차원의 용어로 사용하였다.

있도록 하는 교수자의 역할이다. 화석화된 과거의 사실을 학습하는 것 또한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지금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신의 현실적 삶과 연계하여 공감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들의 미래적 삶에 비전과 지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학습은 더욱 큰 교감과 감동을 가져올 것이며 그만큼 학습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단순히 이야기를 하나를 읽혔다는 데 학습 목표를 두지 말고, 해당 텍스트를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지혜의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을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 하에, 본고에서는 <소대성전>의 지식 층위 학습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연분’과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삶을 질적 변용을 가져오는 자세로서의 ‘지극정성’을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1) 관계를 소중히 하는 마음 : 연분

한국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용구 중에 ‘웃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그 처음은 불가의 인연설(因緣說)에 바탕으로 두고 생겨난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종교적 색채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인다. 특히 연인이 되거나 부부가 되는 이들을 축복하며,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또한 불가의 인연설에 기인한 것이다. 이 뜻은 이승에서 서로의 반려(伴侶)로 만나기 위해서는 천 번의 전생을 함께 한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승에서 부부가 된 이들은, 웃깃을 스치는 것 이상의 인연으로 전생에서 만난 사람들이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천 번의 전생을 함께 한 이들인 것이다. 그러니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국이 얼마 전까지도 세계에서 이혼율이 현저히 낮은 사회일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지녀온 이러한 인연관 때문일 것이다.²²⁾ <소대성전>에서 소대성과 이채봉의 전생을 천상의 용자와

용녀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인연관’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작품에서는 ‘천정인연’이라 표현하였는데, 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으로 ‘천생연분’과 구분하기 않고 사용되는 표현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든가 ‘천생연분’이라는 말은 한국인의 인간관 및 관계론의 기본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로 인식되고 있다. 대체로는 부부 등의 남녀관계에 사용되지만, 이는 부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인연관이 적용되는 유일한 범주라는 의미는 아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의 함의는 우리사회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되는 사회임을 나타낸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부부와 연인 뿐 아니라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관계는 물론 심지어 자신의 직업이나 맡게 되는 일, 혹은 사는 장소와 만나게 되는 사물·동물에까지 모두 ‘연분’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랑을 초월한 모든 만남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도록 한다.

“상공은 옛일을 모르실 것이니, 제 말을 자세히 들어보소서. 이곳은 서역이고, 산 이름은 영보산이며, 이 절은 청룡사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세존들이 계셨습니다. 한데 십오 년 전에 소송이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상공의 댁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공의 아버님께서 수천 냥의 금을 시주하셨습니다. 하여 그 금으로 이 절을 중수하고 여러 세존께 발원하여 소씨 가문에 상공을 접지하여 후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상공은 소송과 오 년의 연분이 있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⁸¹ 다 하늘의 뜻이니, 너무 한스럽다 생각지 마소서.”²³⁾

22) 물론 한국적 인연관이 단순히 결혼이라는 형식적 관계의 유지를 지지하거나 그것을 옹기 여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3) <소대성전>, 81~82쪽.

이 승상 집에서 자객의 습격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쳐 나온 소대성은 정처없이 떠돌다 영보산 청룡사에 이른다. 이곳에서 만난 노승은 환대를 송구하게 여기는 소대성에게 편안히 머물라고 하며, 이 절이 소대성과 깊은 연분이 있음을 알려준다. 사실 청룡사는 소대성이 태어나기 전, 그 부친 소양이 천금을 시주하여 중수한 곳이다. 그리고 그때의 발원으로 소대성이 태어난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소양은 자식을 얻겠다는 계산속으로 시주를 한 것은 아니다. 평소 그는 ‘불사를 위한 보시 권선을 좋아’했고, 보시를 하는 기회에 ‘병든 자식이라도 하나 얻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었다. 시주를 청한 대사가 “재물을 공양하고 자식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이 있겠사옵니까?”라고 말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옵고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바이옵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셈속으로 시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연분이 결국에는 아들 소대성을 낳은 것은 물론, 15년 후 대성이 환란을 겪게 될 때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처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품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모든 만남은 소대성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연분들이다. 노승으로 화(化)했던 청룡사 부처는 5년의 은신처 외에도 대성이 위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칠성검을 주었으며, 장인이자 소대성의 잠재력을 알아본 은인 이 승상은 그 영혼이 나타나 보신갑을 건네준다. 그리고 옥포산의 산신령은 만 리를 달리는 청초마를, 불을 관장하는 화덕진군은 호왕(胡王)의 속임수로 불타오르는 자운동에 갇힌 소대성을 구해준다. 이들은 모두 비현실적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의 등장에 대해 우연성과 비현실성을 운운하며, 고소설은 근대적 리얼리즘이 결핍된 수준 낮은 작품이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을 비추는 진리와 삶을 일깨우는 진실이 언제나 사실적 묘사로만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이 지닌 힘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실에 가려진 지혜를 발견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비현실적 인물의 등장은 만남 즉 연분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즉 한 사람의 성공이나 일생이 기실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대성전>은 작품 전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남녀 결연에서부터 천정인연을 강조하고 곳곳에 주인공을 도와주는 소중한 연분을 배치함으로써, 스키는 연분이라도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최근 서양의 성공한 기업가가,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기회사의 VIP 고객으로 생각하고 대했다’라는 것을 성공의 비결로 꼽았고, 그 말에 전 서구가 감탄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당시 우리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역시, 세계 최고의 CEO는 다르다’며 무릎을 쳤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평생의 경영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는 기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녀온 연분관, 즉 모든 연분을 소중히 하라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2) 삶의 질적 변화를 이루는 힘 : 지극정성

한국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는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다’ 혹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것이 있다. 감천(感天)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것인데, 하늘이 감동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즉 ‘기적’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지성’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인은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듯하다. 또한 그 결과가 자신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하늘을 원망하여 분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지극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금 자신을 돌이켜 분발하는 계기로 삼는다. 그러한 자세는 모든 일을 대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고[盡人事]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待天命]는 것과 통한다. 요사이 스포츠 경기나 정치관 선거에서 흔히 듣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표현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현대 버전이라 하겠다.

여기서 인간의 몫은 ‘지성[盡人事]’ 즉 ‘지극정성’이다. 한국인에게 ‘지극정성’은 하늘을 감동시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이 처한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실천론이다. 그러나 ‘지극정성’을 그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일시적으로 가장(假裝) 하는 사람에게 하늘은 감동하지 않는다. ‘지극’이라는 말은 ‘지속적 삶의 태도로서의 참된 마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노인께서는 무슨 연유로 밤새도록 통곡하셨나이까?” “나는 올해 육십이 읍는데, 금년 봄에 구십 노모가 돌아가셔서 임시로 장사를 지내놓고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도 좋은 뭇자리를 구할 길이 없어 노모의 해골을 거두지 못하여 통곡했나이대.” 소생 역시 부모 여윈 마음을 아는지라, 노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양친을 잃은 사람이더이다. 노옹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감동한지라, 이것이 비록 약소한 재물이나 부디 장사 지내는 데에 보태시기 바라나이대.” 노인은 소생이 주는 백금을 받고서 몇 번이고 절하며 고마워했다. “공자가 적지 않은 재물을 주시니 노모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낼 수 있을 터, 비로소 죄인을 면할 수 있겠으니 이 은혜 죽어 백골이 된다 해도 잊을 수 없나이대. 후일 이 은혜를 보답코자 하오니 거처를 알려주사이다.” “노옹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늘이 지시한 것이니, 갚지 않으셔도 되나이대. 어서 장사나 평안히 치르소서.” 소생과 노인이 이별하는데, 서로 못 잊어 뒤를 돌아보는 정이 비할 데 없었다.²⁴⁾

24) <소대성전>, 36~37쪽.

10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소대성은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며 장례를 극진히 지낸’(36면) 후 남은 가산을 노복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백금 50냥만을 들고 길을 나선다. 서주 지경의 한 주막에서 목계 되었는데, 밤새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다음날 그 울음소리의 주인을 만나 사연을 들으니, 60의 노인이 90 노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통곡한 것이었다. 대성은 당장 자신의 구복(口腹)을 채우는 데 소용할 비상금을 모두 털어 그 노인에게 주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도록 한다. 노인이 훗날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하지만, 그는 도리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이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노인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결과라고 말한다. 그런 후 자신은 남의 외양간을 치워주거나 담을 쌓이주며 성실하게 일한다. 이처럼 소대성에게 지극정성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의 실천덕목이지, 눈앞의 자기 이익으로 환원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편협한 수단이 아니다.

기실 지극정성은 앞의 연분과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만나는 모든 대상에 대해 지극정성으로 대할 때, 사소한 스침일 수 있는 만남이 소중한 연분이 되기 때문이다. 소중한 연분은 삶의 조력자가 되어주어, 내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소대성이 앞의 노인에게 정성을 다하여 그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어주었듯, 이후의 만남들은 소대성에게 정성을 다하여 거지 고아의 삶을 노나라 왕의 삶으로 변화시켰다. 즉 영웅일대기의 서사가 가능한 것은 허황된 우연이 아니라 ‘지극정성’의 삶의 자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힘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삶의 질적 변용이 자신에서 비롯되기에,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좋은 연분이 악연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즉 아무리 호의로 찾아온 연분이라도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악연이 되는 것이다. 악연 또한 삶의 질을 변화

시키지만, 그 방향은 앞의 연분과 정반대이다.²⁵⁾ <옹고집전>이나 ‘장자 못 설화’는 <소대성전>과 마찬가지로 ‘시주를 청하는 승려’ 화소를 채용하고 있는데 전개의 방향은 자못 달라, 승려를 박대하여 내쫓는 인물들이 결국 재앙을 받아 평생 쌓은 재물과 목숨까지 잃게 되는 ‘악연’의 서사를 보여준다.²⁶⁾

이보다 더 고민스러운 것은 시작부터 악연으로 찾아온 관계이다. 우리는 자신이 특별히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는데도 관계가 꼬이는 경우를 흔히 만난다. 그렇다면 상대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 그들과의 관계는 끝내 악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소대성전>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지혜의 팁도 일러준다. 그것은 ‘인내와 관용’이다. 기실 ‘인내와 관용’도 지극하고 정성된 마음이다. 단 그 대상이 자신에게 악인으로 다가온 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생(李生)들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깊이 숙여 잘못을 빌며 말했다. “천생들이 이는 바가 없어 전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박대가 심했사옵니다. 하여 하늘이 전하의 손을 빌려 저희를 죽이고 후인들의 경계를 삼고자 함이옵니다.” “그대들이 과인을 대인처럼 대했다면 내 어찌 청충마와 보신갑, 칠성검을 얻을 수가 있었겠소. 이는 하늘이 그대들을 변하게 하여 과인이 공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이오. 하니 내 그대들의 은혜를 알고 함께 즐기고자 청한 것인데, 과인에게 죄를 청하니 내 어찌 부끄럽지 않겠소?” 노왕은 왕후와 왕 부인, 이생들과 하루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왕 부인과 이생들은 노왕의 마음이 요순 같음을 치하했다.²⁷⁾

25) 악연도 연분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긍정적 의미에서 사용할 때 ‘연분이 있다’고 하고 부정적 의미일 때에 국한하여 ‘악연’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례대로 사용하였다.

26) <홍부전>의 홍부·놀부 서사는 양자를 극명히 대비하고 있다.

27) <소대성전>, 141쪽.

소대성은 왕이 된 후 자신을 죽이려 자객까지 보냈던 왕 부인과 이생 형제들을 초청한다. 그들은 소대성에게 지은 죄가 있어 전전공공한 마음으로 죄를 청한다. 그러나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라는 어느 노 시인의 달관적 고백처럼, 소대성은 오히려 그들의 박대가 자신을 키운 힘이 되었음을 고맙게 여기고, 그 결과로서의 영화를 함께 즐기자고 한다. 더없이 넓고 큰 포용의 마음이다. 기실 처음 자객이 들던 날, 소대성은 자객을 죽이고 이생 형제들까지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 승상이 자신에게 베푼 정성과 채봉과의 연분을 소중히 여겨 그 마음을 참고 길을 나섰던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었기에 훗날 거지꼴의 자신을 무시하고 죽이려 했던 이생 형제들을 관대히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품 넓은 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악연은 그것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때가 되었을 때 통 크게 끌어안는 포용으로 좋은 연분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또한 지극정성을 삶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이에게만 가능하다. 악연으로서의 이생을 보낸 것 또한 하늘이 자신의 공을 이루게 하기 위한 뜻이라 생각하는 소대성의 마음이 가진 자의 오만이 아님은 처음 청룡사에 위탁하던 날, “저의 고생이 곧 영화로소이다”(82면)라고 했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나가며

2009년 상반기, SBS의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는 이른바 막장코드가 트렌드를 이루는 상황에서 착한 드라마라는 호평을 받으면서도 40% 이상의 시청률까지 달성하며 큰 인기몰이를 하였다. 드라마 초반에 여자 주인공이 우연히 만난 초라한 몰골의 할머니를 도와 드렸는데, 알고 보니

재벌가 총수였고 이 할머니는 이후 주인공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이러한 화소는 앞서 말하였듯, 우연한 만남이 필연적 연분이 됨을 나타낸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좋은 연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만남을 지극정성으로 대할 때에만 그 만남은 좋은 연분이 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최근 방영되었던 ‘녕쿨쨌 굴러온 당신’, ‘삼생이’, ‘힘내요 미스터 김’, ‘마의’ 등, ‘출생의 비밀’이라는 막장화소를 채용하면서도 막장드라마의 틀을 벗어나 국민드라마가 된 작품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는 주인공들이 끝내는 본래의 자리 즉 고귀한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삶의 모든 국면에서 참되고 성실하게[至極精誠] 생활하며 사소한 만남까지도 소중한 연분으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인의 기본적 마음자리이다. 한국 사회 또한 각박한 현실논리에 치여 예전의 마음을 많이 잃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고귀한 가치이고 삶을 고양시키는 지혜라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그러한 지혜를 담은 드라마나 강연이 인기를 끄는 것이고, 화려한 수식구의 이메일보다는 한글자한글자 꼭꼭 눌러쓴 손편지에 눈물 흘리는 것이다. 현대적 작품을 통해 한국사회가 최근 몇 십 년 사이 이룩한 물질적 편리함이나 현대화된 문명을 학습하는 것도 한국을 배우고 익히는 방법이다.²⁸⁾ 그러나 오랜 시간을 걸쳐 한국인 내면에 자리한 긍정적 가치를 학습할 때,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의 세계인이 당면한, 불신과 조급함이 불러오는 인재(人災)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

28) 여기서 현대적 작품이란 고전적 전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고, 단절론에 입각한 편협한 텍스트를 말한다. 20·21세기에 창작된 작품들 가운데 고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이 담지하는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은 결국 고전 텍스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혜가 바로 고전의 힘이다. ‘지혜의 서(書)’ 고전은 외국인 학습자는 물론 고전을 외국어처럼 여기는, 또 다른 층위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되어버린 현대의 젊은 학습들에게도 유의미한 텍스트가 될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김동욱, 『방각본 고소설전집』, 영인본.
조수삼, 『추재집』, 고전번역원.
『소학』, 영인본.
오다이쿠로로, 『상서기문』, 영인본.
신해진, 『소대성전』, 지만지, 2009, 9~143쪽.
이옥, 실시학사 역, 『역주 이옥 전집』 3, 소명출판, 2001, 4~486쪽.
김일렬, 『고전소설 신론』, 새문사, 2001, 3~456쪽.
김종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화교육의 쟁점과 전망』, 『국어교육』 133, 2010, 339~367쪽.
서경희, 『소대성전의 서지학적 접근』,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8, 1~113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9~515쪽.
_____,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 9~626쪽.
현혜경,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지감화소의 성격과 의미』, 『국어국문학』 102, 1989, 175~200쪽.

ABSTRACT

Reading Korean Wisdom capitalizing upon Heroic Novel

-Based on <Soudaesungjeon>-

Kim, Soo-youn

This study is for finding Korean literature & culture educational methods for advanced foreign learners, centering around <Soudeasungjeon>, the representative work of a popular heroic novel among the classical novels. For this, I primarily look around the feature of the text, explain the story of man-woman connection and the dual structure of heaven-ground as 'a match made in heaven' of Yonga and Yongnyeo, and discussed hero's life story structure as a orphan and begger's life story through the whole work. After understanding of the core structure and contents, on the basis of this, I contemplated the root of Korean culture and values in the level of wisdom. 'A match made in heaven of Yonga and Yongnyeo' continued from the previous life, was read with 'the view of tie', a relation-oriented mind, and a storyline which a poor orphan boy become into a king of a country was connected with the Korean traditional value, 'devotion and lots of love'. As though this kind of mind make a begger, the main character of the novel, into a king, they emphasized that above mentioned mind is the power which can change our lives qualitatively.

Classics are not merely 'story books' but 'a collection of wisdom'. For foreign learners, it is meaningful to teach material convenience or modernized civilization that Korea society made in recent decades through modern works, but when we instruct a positive value deep-seated in many Koreans for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y can understand Koreans' true character, and simultaneously, get a wisdom to overcome the man-made disasters caused by immediate distrust and hastiness for citizens of the world. This wisdom is the power of classics

definitely. 'A collection of wisdom' is the meaningful text for foreign learners or modern youthful students, another level of learners, thinking of classics as second-language literatures.

Key Words <Soudaesungjeon>, knowledge, wisdom, foreign learners, classic

논문투고일 : 2013. 04. 03

심사완료일 : 2013. 05. 30

게재확정일 : 2013. 06. 02